

2016 IGE/KITA Global Trade Forum

**미국 대선이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Gerald L. Curtis



제럴드 커티스 (Gerald L. Curtis)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세계적인 석학이자 일본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박사는 동아시아연구소장 및 일본 와세다대 객원교수를 역임함.

미국 대선이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¹

제럴드 커티스(Gerald L. Curtis)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동북아와 미일관계, 한미관계의 지정학에 관해서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국내 정세 및 이들 국가의 외교정책 및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대선 캠페인 현황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당선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힐러리가 당선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5월 초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를 1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의 모든 여론 조사에서 막상막하의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전당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힐러리는 여전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예비

1. 본 글은 2016년 5월 24일 IGE/KITA Global Trade Forum에서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강연한 내용을 녹취하여 정리·번역한 것으로서 연사의 개인 의견을 밝혀둔다.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표를 얻기 위해 들추어내는 좌절, 분노, 두려움 등 온갖 감정들을 상식이 이겨내고 결국에는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안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토록 인기를 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마도 낙선하게 될 트럼프라는 사람과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미국 정치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트럼프 현상(Trump phenomenon)’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정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한 명은 극우이고 한 명은 극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다수의 불만이 반영된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이른바 ‘부유한 자유주의자(limousine liberal)’인 기득권의 완벽한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힐러리는 노동자를 들먹이고 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주장하지만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및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한번에 25만 달러에 달하는 강연료를 받고 강연을 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으며, 상류층의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당에게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는 변화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후보는 그가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 버락 오

바마(Barack Obama)가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힐러리를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에 당선되었을 때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 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변화의 주역이었으며 지난 8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본격적인 선거가 다가오면 좀 더 중도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지를 얻고자 하는 근본적 이슈들, 즉 반이민, 반자유무역, 고립주의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표방하는 바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전문가로서 지난 달 구마모토에서 일어난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지진을 목격하였습니다만, 지진이 발생하면 사회의 깊은 균열이 노출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사회에는 크게 세 가지 균열 혹은 큰 분열이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점차 심해지고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매우 부유한 1%와 나머지의 대결이 아닙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쇼크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상위 20% 미국인의 생활수준은 매년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0% 경우, 2000년 이후 임금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가 트럼프의 주장이 통하는 바로 그 집단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정치 쟁점화 되어있는 불평등은 또 다

른 균열 혹은 이슈에 뒤덮여 있습니다. 즉, 인구 변화입니다. 30년 이내에 미국의 백인 인구 비율은 50% 이하로 감소할 것입니다. 1960년에는 미국인의 85%가 백인이었습니다. 올해 백인 인구 비율은 63%입니다. 2045년이면 50% 이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이내, 즉 2019년경에는 0-18세 연령층의 대다수는 백인이 아닐 것입니다. 향후 30년경에는 미국인 3명 중 1명이 히스패닉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힘과 역동성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은 일본과 같이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미국 인구는 감소하지도, 노화하지도 않습니다. 젊은 이민자들이 있고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힘은 이민 사회를 유지해온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건전하며, 미국의 힘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80%에 해당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좌절과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일자리를 멕시코나 다른 나라의 불법 이민자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나, 미국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소득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백인 노동 계층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바라고 예상하는 대로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책에 영향을 미

치리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부 분열이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온건한 국제주의적(internationalist) 중도파로, 힐러리가 표방하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집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민주당 좌파로, 보호무역주의와 큰 정부를 지지하고 외교정책 면에서는 고립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주당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 자유주의와 좌파 진보주의 세력 간의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유한 상위 20%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성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및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갖는 사회자유주의자(social liberals)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티파티(Tea Party)는 극우파이고 낙태와 같은 쟁점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회자유주의 부유층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민주당 표의 약 1/4이 부유층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좌파의 경제 어젠다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민주당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테드 크루즈(Ted Cruz)와 같은 인물이 대표하는 복음주의 및 근본주의의 종교적 우파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주류 공화주의자인 온건한 성향의 전통적 중도 공화당 집단이 있습니다. 예비경선 선거운동에서 이러한 상식적인 중도적 주장을 펼친 후보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존 케이식(John Kasich)의 경우입니다. 케

이식은 본인의 주 한 곳에서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 새로운 사람을 대거 투입하며 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 정치는 공공정책 옵션들을 제안하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특징이었지만, 당시에는 중간에서 어떤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합의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타협은 없었습니다. 공화당은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하려는 모든 일에 반대했습니다.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합의와 타협의 장 없이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몇 주 전, 트럼프는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이를 모순이 가득하고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연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연설을 듣고, “외교정책 전문가가 아닌 많은 미국인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기업에게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큰 손해를 입혔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미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통과될 가능성이 50% 이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TPP가 가결되리라 보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른바 레임덕(lame duck) 회기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레임덕 회기는 고작 16일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상원의원들은 당선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재선되었거나 낙선되었을 것입니다. 낙선했다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레임덕 회기에 TPP를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11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선거도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현재 공화당 24석과 민주당 10석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10석에 추가로 4석을 차지하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 후에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지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이 트럼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나오는 공화당 의원 24명과 민주당 의원 10명 중에서 TPP에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화당 의원 24명과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조리 반대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 그들 중 다수가 TPP에 반대할 것입니다. 힐러리도 TPP가 모범적인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이라고 말한 뒤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TPP가 레임덕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되기란 불가능합니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 후 입장을 바꿔 통과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가망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많은 정치적 자본을 들여 농업

부문의 로비를 했던 일본과 같이 다른 국가들이 노력을 기울인 후에 미국이 TPP 지지를 철회한다면 세계적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를 생각하면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드는 또 다른 이유는 선거를 다루는 미국 언론의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6개월 전에는 트럼프가 제대로 된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좋은 엔터테이너였고, 언론은 트럼프에게 많은 무료 광고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이 필사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그 괴물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대통령 후보자에게 준 무료 광고를 유료 광고 시간으로 환산한 양’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극적입니다. 3월에 잭 부시(Jeb Bush)는 TV 광고에 약 1억 달러를 썼습니다. 잭 부시는 6억 달러의 무료 광고를 받았습니다. 힐러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1억 달러 안팎을 썼습니다. 힐러리는 이메일 문제로 인해 더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8억 달러의 무료 TV 광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1,000만 달러를 썼습니다. 부시나 힐러리의 1/10에 불과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무료 광고 시간으로 따지면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이 트럼프이며 트럼프 현상입니다.

CBS TV 회장은 3주 전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는 나쁠지 몰라도 CBS에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돈

은 계속 들어오고 시청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정말 즐겁군요. 이 대로만 하세요, 도널드. 계속하세요.” 제가 이 말을 기억하는 이유는 연봉이 6,000만 달러인 사람이 당장 내일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키기 위해 트럼프에게 무료 광고 시간을 주는 것이 너무나 껄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 문제는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힐러리가 당선되면 미국의 외교정책도 연속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힐러리에겐 조언하는 핵심 인물이 누구이고, 요직을 맡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일 때 중용했던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힐러리 정권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미국 국민이 좀 더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 NATO 국가들에게 이른바 ‘공동 방어’의 부담을 더 많이 지라는 압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네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는 비용을 내든지, 핵무장을 하고 스스로 보호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돌보고, 우리는 우리가 돌볼 테니.” 트럼프의 세계관은 “우리가 지배하지 못한다면 고립주의로 되돌아가겠다. 우리가 홀로 지배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없다면 당신네들이 그럴 자금을 보태서 지배하는 것을 도와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립주의로 돌아갈 여력이 없고, 세계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병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일본이 미국의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더 많은 (미군) 주둔국 지원금을 낸다는 주장을 계속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중요하고 좋은 일이며 일본은 아마 더 많은 지원금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이 주둔국 지원금에 많은 돈을 지출하므로 우리가 안보 동맹에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안보 동맹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안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면 일본이 얼마를 지출하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을 위해 일본을 방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힐러리 정권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자유무역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일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는 고이즈미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을 때, 헌법을 개정하고 역사를 다시 쓰고 일본을 이른바 ‘아름다운 국가’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경제정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총리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세 개의 화살 전략은 어느 사무라이가 자신의 세 아들에게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를 묶으면 부러트릴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세 명은 함께 뭉쳐야 한다.’ 고 말한 일본에서 전래되는 우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 혹은 전략은 일본 경제를 강화시켜 줄 세 개의 화살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양적완화와 인플레이션 목표를 통화정책에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 번째 화살은 민간주도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구조개혁입니다.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했습니다. 2015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2016년으로 연기했다가 지금은 201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화살을 묶은 이유는 일본은행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내년에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소비와 투자 의욕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하락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 나중보다는 지금 소비하려 들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바뀌는 동안 정부 지출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키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들어가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아베노믹스에 실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정 정책에 있어 일본 국민들은 한쪽 발은 페달에 올리

고 다른 쪽 발은 브레이크에 놓았습니다. 적자재정 예산 규모를 꾸준히 키우는 동시에 소비세를 인상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서는 내년 4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다시 한 번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디다만, 제 생각에는 예정대로 세금을 올리고 이번 가을에 GDP의 2-3%에 해당하는 10-15조 엔 규모의 거액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할 듯합니다.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물밑에서 많은 규제 완화 및 움직임 등이 있었지만, 농업이나 노동시장 등의 영역에서 대대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에게 아베 총리와 그 정권을 지지하는지 물어 보면 대부분 여론 조사에서 50% 이상이 '예' 라고 답합니다. 아베노믹스로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면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집단방위를 허용하도록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으면 대부분이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거의 모든 정책 문제에서 대다수의 일본인이 아베 정권의 행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일치 또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한 적은 없지만, 만약 했다면 같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베 총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면 일본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90%가 "맙소사, 오히려 더 나빠질 겁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현재 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되어

있고 서류에 뒤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민당에 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민당은 고이즈미 총리 이후로 6년간 6명의 총리가 교체된 회전문 인사를 했습니다.

일본인의 안정에 대한 매우 강한 갈망이 아베가 지닌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적어도 2018년에 끝나는 두 번째 임기는 채울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자민당이 내부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상 문제가 아니라 총리 임기를 각 3년씩 두 번으로 제한하는 당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을 바꿔 도쿄 올림픽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베 측근이 아베 총리가 메이지 시대 이후로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3명의 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최장기 재임 총리는 가츠라 타로로, 제 2차 세계대전 전에 7년 11개월간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재임한 이는 사토 에이스케로 7년 6개월간 총리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로 재임 기간은 7년 3개월입니다. 이 세 명 모두 아베 총리의 선거구인 야마구치 조슈 출신입니다. 아베가 세 번째 임기를 채우게 되면 적어도 8년간 재임하게 되고,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 일본 정치체제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첫째, 일본의 문제는 미국의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문제는 중도가

붕괴되고 타협이 어려운 분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당은 우파이고, 다른 당은 점점 왼쪽으로 향해 갑니다. 버니 샌더스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타협과 합의에 이를 힘이 아주 약하고 그럴 여지가 적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질적 분열이 없습니다. 합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실질적 경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일본 야당의 힘이 약해지고 시류에 뒤쳐진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의 당이 7월에 열릴 의회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동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즉, 하원에서도 동시에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목표는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이 개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민당은 의석의 2/3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 정도 의석이 필요하고 그 후에 국민투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 대한 전략은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입니다.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자민당과 연합한 공명당에서 추진해 온 환경보호 조항을 도입하는 법안을 낼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야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민당은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금기를 깨고자 합니다. 일본 헌법은 1946년에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의 목표는 다음 임기 중 국민투표 전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항을 확보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금기를 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는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는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결

여된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은 총리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집단 리더십을 추구하는 의회 시스템의 모델인 영국과 같은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각료는 각 부처의 수장으로 최종 결정 권한이 있으며 총리와 의논하기 전에 주저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총리는 내각의 의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 정권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나 이전의 일본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합니다. 각료들은 총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저는 자민당에 아는 지인이 많은데 사적으로는 아베 총리를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공개적으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책 절차에 일관성이 강화되므로 어느 정도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런 과도한 집중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일본이 강대국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의 합법적 역할과 임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것이 집단방위의 본질입니다. 즉, 이해가 걸려 있을 때 일본군이 미국 또는 잠재적으로 다른 동맹국들과의 전투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일본의 외교정책, 특히 안보정책의 향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세계 속 일본의 역할에 대해 어떤 야망을 품고 꿈을 꾸든 일본은 내부지향적 사회입니다. 일본은 안정을 추구하며,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제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작년 4월, 아베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과의 방위협력 지침에 서명했을 때, 그 해 여름 일본이 다양한 안보 작전에서 미국에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결국, 집단 방위를 위한 법안이 9월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실제 효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일본 국민은 소위 ‘보통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보통 국가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국가는 일본이 생각하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란 현재 그들의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는 여론을 지나치게 몰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아베 총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국을 괴롭히고 겁을 줘서 일본의 여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제한도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노화하는 인구는 훨씬 강력한 군을 갖추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트럼프가 제기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들에 관한 빠르고 간단한 해답은 없습니다. 미국은 외교정책에서 좀 더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 응답

Q 한국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군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군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속에서 일본의 군사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국무부와 지도부의 실제 외교정책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이 질문에 직접 답하기 전에 일본의 엘리트층이 미일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익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익은 자민당에서 더 우측으로 쏠린 계파로 트럼프와 매우 비슷한 주장을 펼칩니다. 일본이 단독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독립해야 하며,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우익의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일본에서 가장 기뻐하고 정치적 이득을 볼 사람들은 우익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서 중국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극우에 속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본 우익에는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는 중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지지가 우익에서 좌파로 퍼져 나갔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동맹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당주의는 민주당 당수 오카다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방위법 폐지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말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실제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며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맹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일본과 안보조약을 맺은 후, 미국은 일본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시 대에는 ‘일본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일본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방투사능력을 갖추고 일본에서 군을 파견할 수 있으려면 일본에 있는 기지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일본의 무임승차를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누구의 무임승차도 두고 볼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분위기와 견해가 크게 반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역량과 관련하여, 일본은 워싱턴의 새로운 안보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망입니다! 아베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4월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존 케리(John Kerry)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열정적이고 기쁨에 차서 일본이 미국의 영토를 방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영토를 방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귀국해서 국민에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견해, 오바마 정부의 견해, 공화당의 견해, 힐러리나 트럼프 중 누가 되었던 차기 대통령의 견해에 있어서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위군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세계 곳곳에서 공동의 이해가 걸려 있는 곳에서 미국과 함께 전투작전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실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한계를 넘어서도록 밀어붙일 것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최근 오키나와에서 젊은 일본인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군복무는 하지 않지만 오키나와 기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는 미국인이 20세 일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시위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계획된 해군기지 이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은 '다다익선' 입니다. 이는 미국의 시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지역에서와는 달리 일본의 군국주의와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를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일본은 훌륭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은 대체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일관계입니다. 일본의 외교정책 목표가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본은 적어도 중일관계에서 세력 균형을 추구할 것입니다. 일본 혼자만의 힘으로는 중국에 대한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일본은 미국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

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웃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매우 강력한 국내 정책을 펼치고 외교에서는 권위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끊임없이 역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뒤에서 일본의 정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TPP에 관한 것입니다. 4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두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와 힐러리는 모두 한미FTA 비준에 반대했지만 나중에 이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도 당선되면 TPP를 지지하게 될까요?

A 먼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중국을 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일본 리더들의 태도에서 걱정스러운 점은 중국에 대한 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모든 국가와 주요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매우 위협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 참여하지 않았던 소련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과 포용전략(engagement strategy)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세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력 균형이란 중국에 대한 균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일동맹에서도 나타납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해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수의 아세안(ASEAN) 국가 및 호주와 안보관계

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조할 점은 포용(engagement)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문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지분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자동반사적으로 ‘안 돼’ 라고 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개혁된 국제 경제 기구가 있었더라도 이는 별개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직은 항상 미국인이 맡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주로 유럽이나 프랑스에서 나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총재도 일본인입니다. 중국에게 중요한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직접 기관을 창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용전략과 균형전략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요시다 총리 다음으로 재임한 총리들과 달리, 아베 총리는 실질적인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을 취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안보정책전략에서 그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복잡한 함축된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베 총리의 안보전략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일본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하고, 호주,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의 이웃 국가와의 안보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인도는 이웃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점점 더 아시아 지

역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적 문제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도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중국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께서 역사에 대해 언급하신 점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 중국 및 한국과 가장 큰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문제는 점차 과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를 놓기 싫어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절대 '예스' 라는 답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이 맞든 틀리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적 문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TPP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된 후 트럼프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TPP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NAFTA조차 폐기하고 싶어 합니다. 힐러리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TPP 반대 입장을 철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조약 자체를 재협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TPP 조항을 시행하는 세부 사항들을 다시 협상할 수는 있습니다. 힐러리는 이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TPP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

다. 힐러리가 당의 의견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 (credibility)에 관한 문제이고, TPP가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간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본다 해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라면 TPP가 조만간 통과되리라는 기대는 접을 것입니다.

Q 한국이 TPP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TPP가 의회에서 통과하고 발효되면 이 조약과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가입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어느 시점에는 중국을 TPP에 가입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회가 TPP를 가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세계무역의 규범을 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위한 규범은커녕 자신들을 위한 규범을 세우는 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TPP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애초에 중국 견제는 TPP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목표라면 중국 견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개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중일 FTA도 추진해야 합니다. 무역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 그리고 정치 관찰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 자유무역 개방과 한중일 FTA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Q 미국은 민주주의 선도국가이고, 인력과 제도, 지식 측면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미국 정치와 언론이 이처럼 빠르게 쇠퇴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일부는 미국 고유의 문제이고, 일부는 다른 나라들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두 사람만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까요? 왜 힐러리와 작년까지는 민주당원조차 아니었던 74세의 사회주의자만 출마했을까요? 대통령 선거 출마자가 이 둘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년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누가 정말 지지를 많이 받는지에 대해 왜 아무도 말할 수 없을까요?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가 그토록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국가에서 리더십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서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인재가 부족할까요? 이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그저 리더십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복잡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개인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정계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쇠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공화당 우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이는

반응이 너무 강해서 미국의 분열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난 8년 사이에 타협을 거부하는 성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Q 며칠 전 힐러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편이 미국 경제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전의 좋은 시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서가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A 저는 힐러리가 선거운동과 선거 전망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심해진 나머지, 두 가지 소용없는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힐러리가 ‘도널드 트럼프는 위험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후보가 너무 위험하니 나에게 투표하라는 것은 곧 ‘당신이 나를 뽑아야 할 긍정적 메시지가 없고, 다른 후보에 반대하여 나를 뽑아야 하는 부정적 메시지만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명한 전략은 아닙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경제를 바로잡게 하겠다는 발언도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힐러리가 당선되면 경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힐러리입니다. 왜 남편이 경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힐러리가 점점 더 절박해져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저는 힐러리가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힐러리의 문제는 자신의 경험과 성취에 대해 즉,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래에 관해 듣고 싶어 합니다. 힐러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Q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EU 국가의 마이너스 금리는 효과가 있는 듯한데 일본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A 사공일 이사장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니 많이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일본은행 정책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나 많은 일본인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가정을 토대로 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 돈을 빌려가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낮은 임금의 일자리조차도 내년에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해 한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사라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TV 뉴스 프로그램 앵커인 저의 제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거의 아무 비용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지금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내년에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연봉이 오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계속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마이너스 금리, 대량의 양적완화가 소비진작으로 이어지리라는 가정은 미국에서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정책이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심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위험을 상당히 기피하게 됩니다. 저는 일본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오바마 대통령이 핵폭탄 투하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불안해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는데도 그의 히로시마 방문이 왜 아베 총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징적으로라도 사과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데, 왜 일본 국민은 오바마의 방문을 환영하는 것일까요?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방문 순서가 잘못되었고, 이유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먼저 진주만을 방문하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난 후에 오바마 대통령도 히로시마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A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보증되는 한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에는 일본 사회의 분열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핵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위협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꺾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 서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이유이지만, 북핵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시도를 한다면 자신의 국가가 완전히 파괴되리라는 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더 북한에 강경노선을 취해왔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효과가 있는 당근은 모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 체제의 혼란과 붕괴로 이어질 만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북한을 억제하고 핵확산과 무기 재료 판매 등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을 구실로 대대적인 무기 경쟁을 벌이거나 일본 우익 세력과 다른 나라에서 주장하듯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를 마주하지는 않

을 것입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몇 개월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양다리를 걸쳐 놓습니다. 이는 미국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일본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스스로 알아서 방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일본은 핵무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 달 전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은 여론 타진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방문을 환영했고 미국에서는 다소간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힘을 얻어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장황하게 사과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는 매우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행동을 일본인들은 참회나 사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히로시마에 동행하고 두 사람이 전쟁 기념관에 함께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인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7월에 동시 선거가 개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이 있었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간직한 사람은 대부분 고인이 되었으므로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막았던 격한 감정들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 미국은 다른 국가만큼 역사의식이 깊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좋은 동맹관계에 있다. 끔찍한 전쟁을 치렀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 그 부분을 축하하고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대중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여기에는 많은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방문으로 세계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바마 정부는 향후 30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소형화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은 정부가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그런 정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방문을 국제사회에서 핵확산 방지에 대한 지원을 얻는 계기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마 G7에서 북한 등을 비판하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서 지금의 방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 기준으로 12월 7-8일에 진주만을 방문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4월 워싱턴을 방문 시 양원

합동연설에서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방문에 대해 한국 친구들이 ‘순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미국에서는 그다지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히로시마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책임자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꽤 좋은 반응을 얻고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은 반응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히로시마 방문은 실현될 것입니다.



Gerald Curtis

Gerald Curtis is the Burges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Columbia University and concurrently Visiting Professor at Waseda University and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tudies, Tokyo, and the Tokyo Foundation.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¹

Gerald L. Curtis

Burges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Columbia University

There are so many issues to talk about with the geopolitics of East Asia, US-Japan relations and US-Korea relations. Maybe what would be most useful would be for me to spend some time talking about domestic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Japan as well as what the implications are for what is happening in our countries, in our foreign policy, and in the region.

Let me talk a little bit about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concern all around the world about what is happening in this election campaign and the possibility that Donald Trump might be elected. I think Hillary Clinton will probably win this election. But it is not a done deal. It is not certain that she will win. At the beginning of this month, there was a 13-point spread in popularity between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in Hillary's favor. As of this morning, it is dead tied in almost every poll. It is a statistical dead hit. And

¹ This is a transcript of the speech by Professor Gerald L. Curtis at the IGE/KITA Global Trade Forum on May 24, 2016.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it is trending toward Trump at the moment but you know it is early. Conventions have not been held. Hillary is still involved in a primary battle with Bernie Sanders. So things will move further.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common sense will win out over frustration, anger, fear, and the other kind of emotions that Donald Trump tries to stir up to gain support and she will be elected.

But t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or for us to think about. One is why is he as popular as he is and secondly, to distinguish between Trump, the man who will probably lose the election, and the phenomenon called the Trump phenomenon that will affect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even if he loses. There is a strong kind of anti-establishment mood in the US that is reflected in the support both for Donald Trump and for Bernie Sanders, who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one on the extreme right and the other on the extreme left), reflecting the dissatisfactions of so many people with politics as usual and with the establishment.

One reason Hillary Clinton is in trouble is that she epitomizes the establishment, the so called 'limousine liberal' who talks about the working men and the party being the party of the common folks, but spends all her time giving lectures for \$250,000 a shot at places like Goldman Sach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who hangs out in a rather rarefied atmosphere of well-off people. This has become a big problem, I think, for the Democratic Party.

Trump is the candidate who is advocating change and new initiatives. And it is not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Eight years ago when Barack Obama was elected president and when he defeated Hillary Clinton in the Democratic primary contest, what were his slogans? “Yes, we can.” “A new beginning.” Barack Obama was the agent of change and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over these past 8 years but they have not satisfied the public. Now it’s Trump. Trump will probably move more to the center as we move into the main election. But, the fundamental issues that Donald Trump is trying to get support for will not change – anti-immigration, anti-free trade, and isolationism. This is what Donald Trump stands for.

There is a kind of a political earthquake under way in the United States. When an earthquake occurs, and as a Japan specialist I have witnessed many including the one in Kumamoto last month, it exposes deep fissures in the society and that is what we see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re are three fissures or three big divisions in American society that will remain at issue for our country whether Trump wins or loses. The most important one is the growing and the extreme state of inequality in income and wealth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t just the 1% against the rest, the very wealthy 1%. It is that the top 20% of Americans have seen their standard of living increase year on year ever since the recovery from the Lehman shock. The other 80% have had stagnant incomes since 2000. And it is this 80% that provides the pool of people that Donald Trump appeals to.

Inequality is overlaid with another fissure or another issue in American society that is driving a lot of politics. That is our demographic transition. The percentage of the American population that is white will be less than 50% within 30 years. In 1960, 85% of Americans were white. This year the percentage is 63%. In 2045, it will be less than 50%. In the age cohort up to 18, within three years, by 2019, the majority will be non-white. In 30 years from now, one of every three Americans will be Hispanic. These are huge changes in American society. And they are the source of the strength and the dynamism of American society, in my view. And it is why we do not face the demographic problem that you face and that the Japanese face of a rapidly aging and shrinking population.

Our population is neither shrinking nor is it aging because immigrants are young and immigrants have children. I think it is the source of the strength of America that we have always been an immigrant society. These figures are healthy figures, I think, a reflection of the strength of our country. But they are also the source of the frustration and the fear of a lot of people in that 80%, especially the white working class people who feel that their jobs have been stolen by illegal immigrants from Mexico or others or that their incomes have been depressed by free trade agreements that help American business, but do not help the American working men. This is what Donald Trump is appealing to.

The point that I would stress is that even if Trump is defeated,

as I hope and still expect, these issues are not going away and they will affect the policies of the next president even if it is Hillary Clinton. Both our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deeply, deeply divided internally. The Democratic Party is divided between two wings. One is kind of the centrist, moderate, internationalist, basically free trade oriented grouping that Hillary Clinton represents. The other is the Democratic left wing represented by people like Bernie Sanders, Senator Elizabeth Warren, protectionists, big government, and isolationists in foreign policy.

One of the interesting phenomena in the Democratic Party that is exacerbating this division between the center liberals and the left wing progressives is a very interesting phenomenon which is that among the affluent top 20% there is a growing support for the Democratic Party. The number of wealthy individuals who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is increasing. The reason is they are social liberals, concerned about women's rights, gay rights, and global warming. These issues are not well received in the Republican Party, where the Tea Party is so far on the right and issues like abortion are rejected. So a lot of wealthy social liberals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About a quarter of voters for the Democratic Party, according to some estimates, are from the more wealthy part of our society. But they do not share the economic agenda of the left, as I said, exacerbating the divisions in the Democratic Party.

Situations in the Republican Party are worse. There is the

right wing, religious, evangelical, fundamentalists represented by people like Ted Cruz. There are the moderate, mainstream, traditional centrist Republicans. In the primary campaign, the one who tried to represent that kind of common sense centrist element got nowhere. That was John Kasick. He won only in one state, his own state. Then you have Donald Trump, bringing in a lot of new people into the Republican Party and shaking up that party.

In the past, American politics was characterized as having a center right party and a center left party offering the public policy options, but there was a center and there was an arena of consensus, an arena in which you could arrive at compromise. Look at the United States in the last 8 years. No compromise. Republicans have opposed virtually everything that Obama has tried to do. How we restore politics of compromise and consensus is critical. You cannot have an effectively functioning democracy without consensus and an area of compromise. Right now, that is a big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gave a foreign policy speech a few weeks ago which every foreign policy expert kind of denounced as full of contradictions, unrealistic, and dangerous. And I agree with that assessment. But I listened to that speech and was thinking to myself, “You know, a lot of Americans who are not foreign policy experts are listening to this.” And I imagine they say, “Yeah, that’s exactly right. That’s what I think. Yeah, free trade agreements have been good for some American businesses

but it's really bad for me." That view is very widespread in the United States.

I should mention as a consequence the possibility tha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TPP, will be passed by the Congress is much less than 50%.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see TPP being approved. Probably the only window is the so called the lame duck session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November. It is a very short schedule to be only a 16-day lame duck session. But there the senators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elected. They are either re-elected or defeated. If they were defeated, they are really free to vote as they like. So Obama will try to get TPP through the Congress in the lame duck session.

Along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s, there are congressional elections in November. In the Senate, there are 24 seats at stake that are currently held by Republicans and 10 seats that are held by Democrats. If the Democrats win those 10 seats plus another 4, they will have a majority in the Senate. So even if Donald Trump were to become the president, I think the chances are very high that the Senate will be controlled by the Democrats after this election. It is currently controlled by the Republicans. So that will be a check on Trump. But of 24 Republicans and 10 Democrats who are running in this election, how many do you think have come out in favor of TPP? The answer is zero, not one, among all the 24 Republicans and 10 Democrats. Almost all the candidates have not stated what their position is.

But as we get closer to the election, you will see many of them come out against TPP just like Hillary Clinton did after saying that it was the gold standard. If it does not get passed in the lame duck session, I do not see how it can pass with a Democratic Congress where even if Hillary Clinton were to become president and change her view and say we should pass it, it is unlikely to happen. So what does that do to America's credibility in the world after other countries like Japan, like Prime Minister Abe using a lot of political capital to get his agricultural lobby to go along if the US pulls the rug out from under the TPP? This is the reality that we face.

One other thing about this election that is very disturbing to me is the irresponsibility of the American media in covering it. Six months ago no one thought that Donald Trump was a serious candidate. But the media thought he was interesting. He was good entertainment and they provided a lot of free advertising time to Donald Trump. They helped create a monster that they now are desperately trying to destroy.

One organization did an analysis of, "If you translated the amount of free coverage given to the candidates into paid advertising time, what does it look like?" Very dramatic! In the month of March, Jeb Bush spent about \$100 million on TV advertising. He got \$600 million of free advertising. Hillary spent about the same, a little more than \$100 million. And, partly because of her email problems, she got more attention. So it is not all positive, but she got about \$800 million of free

TV time. Donald Trump spent \$10 million, one-tenth of either Bush or Clinton. In terms of free time that he did not have to pay for, it was \$1.9 billion. That's Trump. That's the Trump phenomenon.

The president of CBS TV speaking at some business conference in California three weeks ago said about this phenomenon, "Well, Donald Trump may be bad for America but he's damn good for CBS. The money keeps on rolling in and the rating keeps on going up. It's so much fun. Keep it up, Donald. Keep going." I remember the quote by heart because it was so infuriating to hear this man whose salary is \$60 million a year providing free time to Donald Trump to stir up the emotions of people who are worried about having a job tomorrow. This is a media problem that I don't think we have seen in the way we see it this time.

I think the good news is that Hillary Clinton will probably win this election and if she does, we will see continuity in American foreign policy. We will know who the key players are that are advising her and that will hold important positions because they will be people she employed when she was Secretary of State. But under Hillary Clinton, do not expect new American initiatives on free trade because the public support for kind of a more protectionist approach is too strong to deny. Do expect that there will be more pressure on Korea, on Japan, and on NATO countries to carry more of the so-called burden of the common defense. You know what Donald Trump has said about

Korea and Japan, “Either pay for us to stay here to protect you, or do it yourselves and get nuclear weapons and do what you want. You take care of yourselves and we take care of ourselves.” Donald Trump’s view of the world is, “Either we dominate it or retreat in isolationism. And if we don’t have enough power to dominate it alone, you help us to dominate by giving us the money to enable us to do that.” It is not a realistic alternative. We cannot afford to retreat in isolationism and we cannot dominate the world. And we don’t have a mercenary army.

I tell my friends in the Japanese government, “Don’t keep on making this argument that Japan spends more money on host nation support than any other American ally.” It’s good and it’s important and they’ll probably have to spend more. But the implication is that because they spend a lot of money in host nation support, we should be satisfied with the security alliance. That is not the point. The point is that it serves our interests. It is in the interests of defending our own country that we have a security alliance with Japan. If it were necessary, it does not matter how much Japan spends. We are not going to defend Japan to do a favor for the Japanese. I think under Clinton we will see more pressure on allies to do more, and a different position on free trade issues.

Let me switch gears and talk a little bit about Japan. When Abe Shinzo was prime minister the first time after Prime Minister Koizumi, his emphasis was on revising the Constitution, on rewriting history, and on making Japan a so-

called beautiful country. He didn't have much focus on the Japanese economy. He didn't have any clear economic policy. So he was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he came back into office this time because he came back with a strategy, an economic strategy, and branded it as 'Abenomics' with three arrows. The three arrows strategy goes back to an old fable in Japan about a samurai telling his three sons, "One arrow can be easily broken but if you bundle three arrows together, then they are unbreakable. So you three need to stick together." That's where it comes from. Abe's policy or his strategy supposedly was to bundle together three arrows that would lead to strengthening of the Japanese economy.

The arrow was monetary easing and setting an inflation target. The second was fiscal stimulus. The third was structural reform to encourage more private sector-led growth. And the Bank of Japan set a 2% inflation target. It was supposed to achieve it in 2015, then they postponed it to 2016 and now it's sometime in 2017. But they are not going to achieve a 2% inflation target. All three of these arrows are sort of bundled together, so that you would have the Bank of Japan policy that would change the people's mindset and shift away from deflation. If you expect that prices will be cheaper next year than they are now, rather than the incentive to consume and invest as much if you assume prices will go up, you will go out and buy now rather than later. And while the inflation expectations were changing, the government consumption would stimulate demand and then

major structural reforms would kick in and the economy would be self-sustaining.

None of this has worked. Abenomics has been a disappointment to the Japanese public. The inflation target is not being reached. And on fiscal policy, the Japanese have had one foot on the pedal and one foot on the break, steadily increasing the size of the deficit finance budget and raising the consumption tax at the same time.

As you know, one issue now is what Japan will do about the scheduled consumption tax increase from 8% to 10% that is supposed to kick in next April. There is a lot of speculation that Abe will once again postpone the tax. I believe he is going to raise the tax on schedule and compensate for it by having a very large supplemental budget this fall on the order of 10 to 15 trillion yen, 2% to 3% of GDP.

On structural reforms, there has been a lot of under the radar deregulations, moves, and so on, but major structural reform, whether in agriculture or the labor market or other areas, simply has not happened.

But if you ask the Japanese if they support Prime Minister Abe and his government, more than 50%, in most polls, say, "Yes." Do you feel that Abenomics has benefited you? Most people say, "No." Do you agree with the decision to reinterpret the Constitution to permit collective defense? The majority says, "No." On almost every policy issue, the majority of the public

does not support what the Abe administration has done. But the majority supports the Abe administration. How do you explain this inconsistency, or this contradiction? The answer is not very difficult to discover. It is the question that is not asked, but if it were, the result would be overwhelmingly the same answer. Do you think that if Prime Minister Abe were to be replaced, that things would be better in Japan? I think 90% would say, “Oh my god, no it would only be worse!” because the opposition parties have never been weaker and more irrelevant. They don’t talk about the issues that matter to people. There is no challenger to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The LDP had revolving door prime ministers after Koizumi, six in six years. The desire for stability is very strong and it is a major source of Abe’s strength. So you should assume that Prime Minister Abe will be prime minister at least through his second term which is 2018. You never know in politics what might happen but the chances are that the LDP will revise its internal rules – it is not a constitutional issue but an internal party rule about the president being limited to two terms of three years each. That may well be changed and he will remain prime minister through the Tokyo Olympics. Someone very close to him told me one thing Abe thinks about is the three longest serving prime ministers in Japanese history since the Meiji era. The longest serving one was called Katsura Taro, before the war: 7 years and 11 months. The second longest serving was Sato Eisuke: 7 years and 6 months. And the third one was Ito

Hirobumi: 7 years about 3 months. They all come from Abe's election district. They all come from Yamaguchi, Choshu. If Abe gets his third term, he will serve at least 8 years and be the longest serving prime minister in modern Japanese history. I think the chances of that happening are real.

Two features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al system are worth noting. One is that their problem is exactly the reverse of the American one. Our problem is that the center has collapsed and we are being drawn into a division where it is hard to compromise – a party on the right and a party that is being drawn increasingly to the left and will keep being drawn to the left because Bernie Sanders has done as well as he has. We have a very weak and small area for compromise and consensus. In Japan there is no real division. You cannot have a democracy without consensus. You cannot have a democracy without real competition. I think since the end of the war, there has not been a time where the opposition has been as weak and irrelevant as it is in Japan today. You can thus expect that Prime Minister Abe's party is going to do well in the House election to be held in July. There may be a double election, in other words, they can have an election in the Lower House at the same time.

His goal is to revise the Constitution. It will not happen. The LDP cannot get two-thirds of the seats which is what you need to pass a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al that then goes to the public in a referendum. So I think the strategy on that issue is after this Upper House election, if the LDP wins a strong

majority, he would come up with a proposal by introducing an environmental protection clause which is what the Komeito ally party of the LDP has been pressing, something non-controversial that would draw the support of members of opposition parties. So they can break the taboo about there being a constitution that cannot be revised. It has never been revised since it was adopted in 1946. I think his goal in this next period is to get a non-controversial provision before the public in a referendum and revise something in the constitution just to break that taboo. The next step is to revise Article 9. I don't think it is going to happen, but it might later on.

This lack of consensus is one characteristic. The other that is very important is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Japan never became quite like Britain which was the model for its parliamentary system in that it was a collective leadership. Each cabinet minister was kind of the boss of his ministry who had the final word and did not hesitate to express his/her views on policy before checking him/her out with the prime minister. The prime minister more often acted lik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his cabinet. That is not the way the Japanese government is run anymore. This is Prime Minister Abe's government in a way that has never been true in post-war or even pre-war Japanese history. No cabinet minister says anything that the prime minister does not agree with. People are very careful and I have a lot of friends in the LDP that I meet with and they are oftentimes very open in their criticism of

Prime Minister Abe to me, privately, but never publicly. Some degree of concentration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 good because it gives more coherence to the policy process bu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that I think we see is very problem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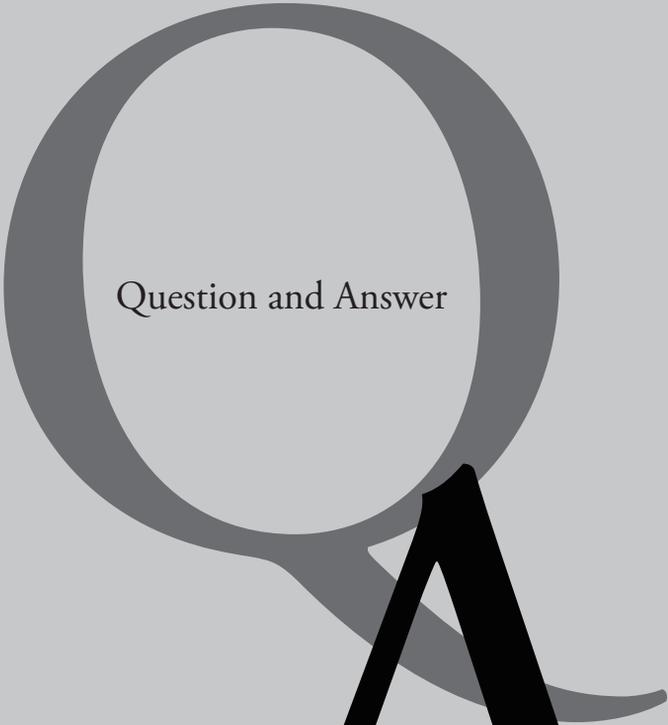
Concerning Japan's foreign policy, Prime Minister Abe has a conviction that Japan should be regarded as a great power and that Japan has a role to play as a leader in this region and globally. He has pushed hard to expand the definition of legitimate roles and missions for the Japanese military. That is what collective defense is all about. That is, Japan's military can engage in combat oper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r potentially with other countries that are allies when its interests are at stake. I think in Korea and elsewhere there is concern for where Japan's foreign policy, especially its security policy, is to go.

I am fairly relaxed about this issue. Whatever Prime Minister Abe's aspirations or dreams might be about Japan's role in the world, he is dealing with a society that is inward looking, that is comfortable, and that is not supportive of Japan taking high risks and playing a more major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in my view. When he was in Washington in April, and the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 was signed with the United States, he talked about how he would pass legislation last summer that would enable Japan to make a demarche with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security operations. Once he got back, he had to walk back a lot of that rhetoric. And the bill

that finally passed that died in September that does provide for collective defense is very limited in what it can do.

So I think the Japanese public is not prepared at least in current circumstances to accept that Japan should be a so called 'normal country.' First of all, what is a normal country? What we think is a normal country is not what Japanese think is normal. Normal is what they have. I think Prime Minister Abe is realistic enough to know that he cannot push public opinion too far. His only hope really is that the Chinese will continue to be aggressive, bullying, and scare people enough, so it will change the Japanese public opinion. We hope that they do not do that. Then there is a demographic constraint. A shrinking and aging population is not a recipe for having a much stronger military.

I think the US situation is very unpredictable. As I said, whatever happens to Donald Trump in the election, the issues that he has raised are going to be something that we have to try to come to grips with for years to come. There is no quick or easy answer to these issues. And it does mean a somewhat more constrained role for the United States in foreign policy.



Question and Answer

A

Q The one subject we are interested in is the US position on Japan's military. Clearly in Asia, peopl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Japanese military. What I would like to know is the American attitude towards the Japanese militarization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US leadership's real foreign policy position on this issue?

A Before I directly answer the question, let me say something about the Japanese elite's views on the US-Japan alliance. One of the big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Japan is that the Japanese right wing, that is more on the right in the LDP, actually has an argument very similar to Donald Trump's. That Japan should do more for itself, Japan could be independent and Japan should take care of itself is the right wing line. I think if Donald Trump would win, those that would be the happiest in Japan and benefit the most politically is the Japanese right. But, what has changed the calculus is China. Even on the Japanese right, leaving aside the real crazy people at the far end, there is the view that there is no way for Japan to defend itself against China without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So support for the alliance has spread from the right to the left and I think there is much wider support for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an ever before. There is much more bipartisanship than you would guess from listening to the rhetoric people like Mr. Okada,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use about repealing the National Defense Legislation and

so on. They do not mean it. It will not happen.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is very strong.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after the United States signed a security treaty with Japan, the United States criticized Japan for taking a free ride. But the view in the Cold War was, “Japan is getting a free ride. We want Japan to do more. But even if they don’t, we need the bases in Japan to have the forward projection capabilities and to have the ability to project our forces from Japan. And we can afford to pay. We can afford to give Japan a free ride.” The big change is the mood and the view in the United States that we really cannot afford to give anybody a free ride anymore. This is changing the dynamics.

As far as what the Japanese military can do, what was Japan’s reaction to the new security legislation in Washington? Disappointment! Disappointment that Abe did not go further. When he was in Washington in April, John Kerry had a press conference in which he said with great enthusiasm and joy that Japan has now committed to defend American territory. Japan did not commit to defending American territory. Abe came back and told the public that that was not the case.

There are lots of American views. But if you think about the government’s view, the Obama administration’s view, the Republican view, and the view of the next president, whether it be Hillary Clinton or Donald Trump, it is that the US would like to see Japan do more militarily. The US would like to see

Japan expand the roles and missions of the self-defense forces and be able to join the United States in combat operation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where our common interests are at stake. I do not believe there is support for that in Japan. But the US is realistic and what the Pentagon would like to see Japan do is not what we are going to get but we will keep on pushing the envelope.

One big current concern in Washington is this most recent murder of a young Japanese girl in Okinawa, a 20-year-old girl who was murdered by an American who is no longer in uniform but works for the military in Okinawa. We do not know how big the protests are going to be, but it is being linked to the proposed movement of this marine base away from Okinawa. Okinawa is a time bomb that can go off at any moment. The short answer to your question is the more, the better, which is the American view frame. There is not the concern you find in this region about Japanese militarism and about Abe's historical revisionism. That is also reflected by the decision by Obama to visit Hiroshima. The past is the past. We are looking to the future. Japan is a great ally. We want it to do more. Now I am not speaking my personal view but I think that, as far as I can tell, is the dominant view among policymakers in Washington.

Q I have two questions. One is about Japan-China relations. Suppose that one of Japan's foreign policy goals is to defend against China's expansion in the Western Pacific. If that does not work, maybe Japan can pursue a balance

of power at least between China and Japan. If Japan alone cannot strike a balance of power vis-à-vis China, then Japan needs US assistance and help. But that may not be enough and so Japan may also get support from neighboring countries. Prime Minister Abe has taken a very strong domestic policy and very authoritative diplomacy. But hanging over, history is clouding negotiations in this region. What are the politics of Japan behind this situation? My second question is about TPP. Four years ago in the election campaign, the two Democratic candidates, Obama and Hillary Clinton, both opposed the ratification of Korea-US FTA, but later supported it. Can Donald Trump also support TPP if he is elected?

A First, about Japan and China, and it is true also about the US and China relations. There is no way to contain China. One thing that concerns me about the attitudes of a lot of the Japanese leaders that I talk with is that they think we need a containment policy against China. But you cannot contain a country that is a major trading partner for every other country in this region. This is not the Soviet Union which was a big military threat but was not economically part of the world in the way that China plays. China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of power in the region and an engagement strategy.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balance the Chinese power.

I think a balance of power means balancing against China. We see that happening with the US-Japan alliance. Why did Obama decide to end the Ban on Arms Sales to Vietnam? It is all about

China. Japan is developing security relations with many ASEAN countries and Australia. Japan tried and failed to sell submarines to Australia. But the effort to find a way to maintain a balance of power is one aspect of what the Japanese policy is about. And the other that needs to be emphasized is engagement.

You cannot insist that the Chinese be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the world affairs and not give them a stake to hold. So I thought it was a very big mistake for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s to say 'no' in a knee jerk manner to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f we had reformed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that would be one thing. But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is always an American and the head of the IMF is usually from Europe or France. And the president of the ADB is also Japanese. If the Chinese are not given a place at the head table, what are they going to do? They will create organizations of their own. And that is what we see going on. I think we need to combine this engagement strategy with a balancing strategy.

Unlike any prime minister since Yoshida since after the war, Prime Minister Abe actually has a foreign policy and a security strategy. His security policy strategy is very simple in conception and pretty sophisticated in implication. It has three prongs. Japan does more for itself. It does more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it does more to develop security tie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 Australia, India (hard to think of as a neighboring country but it is increasingly becoming a part of

this region), Vietnam, and the Philippines. I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somehow get these issues about history off the center stage, then there will be mor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as well. I think that is the way Japan is approaching the China issue.

The point you make about history is true here and in China. But it is not very important any longer in Southeast Asia and the further away you move. Japan's problem is that its most difficult relations are with the countries closest to it – China and Korea. As you move further away, these issues are really receding into the past. Frankly, I think it creates a percep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Korea does not want to let this issue go. That Korea won't take 'yes' for an answer. Whether it is the right perception or a wrong perception, it is truly the case. I think this history issue plays out in many different ways.

On TPP, it is possible, but I cannot imagine Trump changing his view on TPP. He wants to repeal NAFTA as well as not approve TPP. Hillary Clinton may find a way and will probably try to find a way to move back from her position of opposition to TPP. You can't renegotiate the treaty but you can renegotiate details about how to implement a lot of the provisions of TPP and that is what she would try to do. But I find it very difficult to see how a Democratic controlled Congress, even if the president were Hillary Clinton, came out in favor of the TPP. I don't think she could bring her party along. The argument would have to be that this is not a question of economics but a

question of credibility in the world and it undermines the US security interests if we do not approve this. Whether she could sell it or not, it will take a lot of time. At best, it would take a lot of time. So I would not hold my breath about TPP getting approved any time soon.

Q How do you think Korea should position itself with regards to TPP, China, and Japan?

A I would think that if TPP is approved by the Congress and comes into effect,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be a part of that game and to be a part of that group. I would think that would lead to Korea to seek accession to it. The goal should be to draw China into the TPP at some point. It is really unfortunate that in order to sell TPP to the Congress, Obama has resorted to this line, “If we don’t set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e Chinese will.” The Chinese are having enough trouble setting the rules for themselves, much less the world. But it makes it sound as though TPP is aimed at containing China, which was not the initial purpose at all and that should not be the goal. And China is unattainable if it were the goal. I personally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pursue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opening up to free trade at the same time as well as a Japan-Korea-China FTA. I am not a trade specialist and speaking as an amateur and as a political observer of these issues but I do not think those are mutually exclusive and should not be seen as mutually exclusives.

Q The United States is the leading democracy and I believe it is the most resourced country in people, institutions, and knowledge. What is it in your view that is making US politics and journalism deteriorate so rapidly?

A Some of it has to do with things unique to the US and some are structural features that I think are common to a lot of our countries. Why is it that only two people decided to try to become the presidential nominee of the Democratic Party? Why is it only Hillary Clinton and a 74-year-old socialist who was not even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until last year? Why are they the only two people who are running for office? Why in South Korea with an election coming next year, no one is able to tell me who the likely candidates are going to be and who is really popular in this country? Why in Japan is Abe's popularity high? There is nobody to compete with him. So there is a leadership deficit in all our countries. It is true in Western Europe as well. Why do we face this lack of talent wanting to go into political career? There is a common issue here and it may have to do simply with the complexity of leadership and what it means to make policy in this world that we live in. That is beyond any individual's capability. It cannot be fun to be President Park at the current moment. I think not a lot of people are opting for political careers in the US. Why we have this deterioration? I think part of it is that there was such a strong reaction against President Obama on the Republican right that has just exacerbated the divisions in our country. For whatever

reason, the unwillingness to compromise has just become so much worse over these past eight years than it was before. I am sure there are other reasons as well.

Q Clinton, a few days ago, said her husband would fix the US economy if she were to be elected as president. There is apparently a sentiment that many Americans probably want to bring back the good old day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o you think such an approach will influence the election?

A I think it is a reflection of Hillary Clinton's growing anxiety and uneasiness about her campaign and her election prospects that are leading her to do two things that strike me as probably not going to work. One is her saying that, "You don't want to have Donald Trump as president because he is dangerous." I agree. But that is not a way to get someone to say, "Then I will vote for you." Just by saying the other candidate is too dangerous so vote for me is to say, "I do not really have a positive message for why you should vote for me. I have a negative message why you should vote against the other guy." I do not think people get elected that way, not easily at least. I do not think that is a wise strategy. And then to say she is going to put Bill Clinton to work and he will fix the economy is not a good strategy. If she is elected, she is supposed to fix the economy. Why is she saying that her husband is going to fix the economy? Because she is desperate. That she is increasingly desperate I think is the answer. So it worries me. The problem

with Hillary Clinton, who I hope will win, is that when she talks, she talks about her experience, about her accomplishments – she talks about the past. Voters want to know about what she is going to do about the future and about their anxieties, not about her desire to reach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There is not enough in her talk about that.

Q Japan has a negative interest rate. The negative interest rate in EU countries seems to be working, but not in Japan.

A I speak with great hesitance on these kinds of issues sitting next to Chairman SaKong. What strikes me is not only about minus interest rates but the BOJ policy in general. It is that it is based on some assumptions that do not make sense to me and a lot of Japanese. You can borrow the money basically free of charge because the interest rate is so low. But who is going to borrow this money? That is what we have seen with the failure of the inflation target. You cannot convince people to go buy something now if people are worried about whether they are going to have a job next year with this low wage. One of my students, who is an anchor on a Japanese TV news program said, “I have two young children. We are renting an apartment. I want to buy an apartment. I can borrow the money for almost nothing, but I do no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is economy. Will the apartment that I buy be worth as much? Will the value of the apartment appreciate over the next year or will it depreciate? I am not confident. Will my

salary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or will it go down? I do not know. I am too nervous to buy an apartment now.” So he continues to rent. You hear this refrain over and over again. I think the assumption that an inflation target, minus interest rates, and throwing a lot of money out at people would lead them to consume may seem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But I do not think it is working in Japan. I do not think it will work in Japan because of the psychology. If I am not confident about the economy, I am going to be very risk averse. I think that is what is going on.

Q We know President Obama will visit the Hiroshima nuclear bombsite. As I gathered, President Obama is not going to apologize for using the nuclear bomb there. Many Koreans are quite apprehensive about President Obama’s visit to Hiroshima. I can see why Obama is going there because he is engaged in the topic of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owever, many Koreans, including myself, are wondering then why President Obama’s visit to Hiroshima gives an advantage to Abe, if Obama is not going to apologize? And why does the Japanese public welcome Obama’s visit there, unless Obama, symbolically, is giving a gesture to apologize? Many Korean intellectuals feel that the sequence of visit is wrong and the visit is for the wrong reasons. Abe should visit Pearl Harbor first and apologize for what Japan has done for the Second World War. Then of course, President Obama can visit Hiroshima. What is the perception, first of all, of the Japanese people about President

Obama's visit?

A On Japan going nuclear, it will not happen as long as the US commitment to Japan's defense remains credible. There are so many negative aspects to going nuclear including tearing Japanese society apart because there is no consensus on doing so and leading to proliferation in the region including right Korea. I think in the US there is much more talk about the danger of Korea going nuclear than of Japan going nuclear at the present time.

I think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r the fact that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and obviously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ability to miniaturize them and stick them on a missile that can reach Guam and possibly some time reach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is a reason for concern. But frankly, we should not exaggerate the North Korean threat. I do not think Kim Jung Un is irrational. I think he knows that if he used nuclear weapons or were about to use nuclear weapons, it would mean the utter destruction and devastation of his country. I have become increasingly hard line on North Korea. There is no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y are not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We can give them all the carrots we have. We can be very tough on sanctions. That can work as long as the Chinese in the end refuse to pose the kind of sanctions that might lead to chaos and the collapse of the regime. So I think we have no alternative but to contain North Korea as best as we can and try to prevent proliferation and their

ability to sell weapons material and so on.

But I think that it is dangerous to us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a reason to have a big arms race or going nuclear and so on which you hear from the right in Japan and elsewhere. I do not think it is an issue that we are going to confront for some time to come. The Japanese are one minute before midnight on going nuclear. That is they can go nuclear in a matter of months once the decision is made. So they always hedge their bets on this issue. It all relates to the credibility of the American commitment. Donald trump becomes president, pulls troops out of Japan, and tells the Japanese to take care of themselves. If you can imagine such an unimaginable scenario, you can imagine Japan going nuclear. I cannot imagine that coming to pass.

There was a trial balloon when Secretary of State Kerry went to Hiroshima a month ago. It was a trial balloon in the sense of seeing what the reaction would be in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was pretty positive. The Japanese welcomed the visit and in the United States there was some criticism but not very much. I think that it encouraged Obama to go through with it. I am certain that it will be very much welcomed by the Japanese, even though he won't apologize as such in too many words. But the fact that he goes to Hiroshima and pays respect to the memory of those civilians who were killed there will be interpreted as contrition or apology by the Japanese. I think it will be good and the fact that Abe will be with him in Hiroshima

and the videos showing the Prime Minister with President Obama at the war memorial will bounce up Abe's popularity numbers in the public opinion polls, which is why it might be a double election in July, depending on how big a bounce he gets. So it will be welcoming in Japan.

There is some criticism in the United States, but it is at a pretty low level.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almost everybody who remembers those horrible days is dead, so the emotions that made it impossible for the president to visit in earlier years in the US are pretty weak. And it is a long time ago and maybe we just do not have as much as a deep sense of history as other countries. The American view is, "We have a great alliance with Japan. We had a horrible war which resulted in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now the relationship is in very good shape. Let's celebrate it. Let's demonstrate it by doing the symbolic visit to Hiroshima." That is the way it is being played by the administration and that is the way it is going to be received, but there is a lot of hypocrisy involved here. This is no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nuclear weapons in this world and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n nuclear weapons is to invest a huge amount of money over the next 30 years to modernize the American nuclear force and to miniaturize it and make it possible to use nuclear weapons, if necessary. So it is not that the administration is interested or has any policy to eliminate nuclear weapons (which is not going to ever happen, in my view). But he will use Hiroshima as a way to try to rally

the world community support for preventing proliferation and I think probably at the G7 there will be something to communicate criticizing North Korea and so on.

As for the sequence, Obama is not going to be president long enough to make the sequencing any different than it already is. I assume there is an implicit understanding that Abe will visit Pearl Harbor maybe on December 7th or 8th in East Asia time. When Abe was in Washington in April and spoke before a joint session in the Congress, he spoke about the war and did not quite apologize but came as close as you want. So I do not think the issue of sequencing is going to be any concern. I have heard 'sequencing' from Korean friends this visit a lot which you don't hear much in the States. In early years I thought that it was not a good idea to go to Hiroshima. Obama is the right president and this is the last shot he has to do it. I think it will go over quite well in Japan and will probably be ok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nd it will be done.